

여름 산사 추억

수덕사 견성암에서의 하룻밤

나는 비구니 스님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려 하는 임권택 감독을 따라서 비구니들이 수도하는 여름 산사의 체험에 나섰다. 임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그리고 나는 그들의 용맹정진의 모습과 비구니 스님들의 신비롭고 향기로운 모습을 살피고 싶었다. 주지 스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다. 비구니 산사 특유의 분위기와 향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단히 각오를 했다. 여름 결제중인 그들의 삶은 어떤 모양새일까. 밤인데 그들은 희미한燈光 불빛 아래서 가부좌를 튼 채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다.

산에 사는 사나운 모기를 피하기 위하여 널찍한 선방 안에는 거대한 모기장을 늘어뜨려 놓았다. 나는 모기장 밖 마룻장 위에서 반가 부좌를 하고 그들처럼 용맹정진을 해보려고 했다. 감독과 촬영기사는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 용맹정진을 경험하려고 들었다. 모기장 안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가스소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성실하게 그들의 흥내를 내보려고 들었다.

물론 나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나의 주인공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나는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에 들어갈 때 늘 나의 주인공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눈으로, 그 감각으로 세상을 살핀다. 심지어는 달과



한승원 작가

● 수덕사 견성암 선원에서의 하룻밤 체험은 나를 황홀한 흥분 속으로 밀어 넣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결과물을 이룩했다. ●

# 만월 달맞이꽃, 목탁새 그리고 비구니 스님

별과 꽃과 흐르는 물과 벌레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기장 안의 대중들 속에서 내 주인공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모기장 바깥에서 모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나의 학습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나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들의 치열한 선수행이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성스러운 외포도 느꼈다.

나는 한 30분쯤 모기의 공격을 받으며 반가 부좌를 틀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밖은 달이 중천에 떠 있었다. 달이 그렇게 신비로운 것을 처음 느꼈다. 수덕사 뒷산은 진한 수목으로 칠해 놓은 듯했는데, 그 산 속에서 크렁크렁하고 목탁새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룡한 산골짜기에서 메아리를 일으켰다.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물론 나는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나의 주인공들과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모기에 물린 자리를 긁었다. 목과 손등과 팔뚝과 얼굴과 귀가 한없이 가려졌다.

낮에 스님들이 포행을 하던 마당을 밟으며 가장자리로 갔다. 황소만한 바위가 몇 개 있고, 그 아래로는 절벽이었다. 실바람이 절벽 밑의 산골짜기에서 올라왔다. 산골짜기에는 물은 이내가 고여 있었다. 실바람을 맞으며 만월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심호흡을 하면서 절 입구로 걸어들었다. 안자에서 선원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길 가장자리에 달맞이꽃 나무들이 무성하게



그림 · 박구원

지라 있었다. 셋노란 꽃들이 활짝 피어 그야말로 달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 꽃들을 내 주인공들의 눈으로 보았다. 주지가 마련해준 객실에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내 귀에는 계속 목탁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은 그 목탁새가 전생에 득도하지 못하고 죽은 한스러운 스님의 낫이 된 전설적인 새라고 했다.

대학시절에 나는 서울의 신흥사 위쪽에 있던 적조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의 모퉁이 방에서 많은 밤을 지새웠다. 24세의 율각이인 도안스님과 나는 서러벌에대 문장과를 함께 다녔던 것인데, 자취를 하던 나는 쌀과 반찬이 떨어지면 염치불고하고 적조암으로 가서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신세를 지곤 했다.

그 스님은 미국에서 전법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입적했다. 나로 하여금 불제자가 되게 한 것은 도안 스님이었다. 적조암에서는 예불하는 모습과 목탁소리와 풍경소리를 들었을 뿐 스님들이 선수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수덕사 견성암 선원에서의 하룻밤 체험은 나를 황홀한 흥분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내 소설의 분위기와 비구니 스님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의 역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삼스럽게 불경을 공부하고, 취재를 하면서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결과물을 이룩했다.

## 만해축전 8월 11~14일...인제 만해마을서

만해 대상 및 유심상 시상  
학술심포지엄 · 문예행사 '풍성'



만해축전이 8월 11일~14일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에는 심포지엄, 문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난해 하늘내린센터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모습

만해 스님의 실천정신과 문학사상을 되새기는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에는 만해대상 시상식은 물론 학술포럼 문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하늘내린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평화 대상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라(Aki Ra) >만해실천대상에는 프랑스 주교 르네 뒤퐁(Rene Dupont),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 소수위원회 위원(불교부장관) 오타니 문수 고신(Otani, Monshu Koshin),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변호사) 쿠트 그리블(Dr.kurt Gribl) >만해문예대상에는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Souad MohammedAl Sabah), 문학평론가 겸 前 경희대 국문과 겸재교수 등이 각각 수상한다.

같은날 제10회 유심작품상 시상식도 열린다. 만해마을 남의 침묵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에는 >시부

의 효용성 >시와 생명 >한국문화와 아시아문학의 공감점 상상 등이 열린다.

문예행사는 >제14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 백일장 및 시상 >제10회 남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 및 입상작 전시 >권영민의 문학콘서트 >만해시인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 등이 펼쳐진다. (033)462-230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용산 기록' 불교계도 '공감'

4만명 돌파 다큐 '두개의 문'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7월 24일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두개의 문' (감독 김일란·홍지유)을 관람했다. 현재, '두개의 문'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4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 38개 상영관에 상영중이다. '용산 다큐멘터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영화는 2009년 1월 20일, 경찰 특공대원 1명,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단순히 용산참사의 사건 경위나 철거민의 투쟁과정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2010년 8월부터 진행된 법정 재판 과정도 충실히 담았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용산참사를 바라보게 한다.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두개의 문' 포스터

한편, 조계종은 용산참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월과 5월에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봉축요식에 유가족을 특별초청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뎠음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산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관절염,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음은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땀과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음(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땀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머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머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직권강태도, 오십진조계, 오주배계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증,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정형 후크

소형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B 인지구 26E

A/S 불룩 전선 10년  
5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채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구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전선지초(명사용) 탈피이방성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아주 밝은 안전지초 (LED)용  
LED전구, DC 3V 백색, 노랑, 빨강

▶ 빗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